

“하천은 생태계 고리의 시작점
민·관 힘 모아 환경사랑 실천해요”

이현주 고양 신중년 드림하천 매니저

글 배미진 사진 이현재



고양시는 신중년 ‘희망-내일’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하천 보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이현주(58) 드림하천 매니저는 깨끗한 하천 만들기 에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곡산역 앞 도촌천에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과 유해식물 제거 작업에 한창인 이현주 드림하천 매니저를 만나봤다.

Q. 드림하천 매니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생태 교육과 생태 교란종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등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이 작업이 단순히 풀을 뽑는 일이 아니라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려요. 비가 오는 날에는 환경 교육을 하는데 물과 공기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공공근로자들의 참여도도 높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변화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합니다.

Q. 언제부터 생태 환경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제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뜻이 맞는 부모들과 합심해 숲에서 교육을 진행했었어요. 고봉산, 호수공원 등 지역 자연을 돌아다녔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했죠. 환경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숲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고봉산 숲 학교’를 만들어 20년 동안 숲에서 생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에서 환경운동도 했죠. 저는 나무심기운동에도 관심이 많아요.

Q. 유해식물은 하천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나요?

하천은 동물들의 먹이와 물이 있는 식당이며 먹이 사슬이 처음 시작되는 곳입니다. 물속 플랑크톤을 시작으로 새우, 곤충, 개구리, 뱀, 독수리 순으로 생태계 고리가 이어지는 시발점이 하천이죠.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식물은 번식이 왕성하기 때문에 토종식물이 자랄 틈을 주지 않아요. 유해식물이 단일 식물이 돼버리면 곤충들이 먹이 식물이 없어집니다. 자연스레 곤충을 먹이로 하는 새의 먹잇감도 사라지죠. 이렇게 오랜 시일에 걸쳐 생태계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Q. 하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소개해주세요.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제품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섬유유연제, 락스 등에 함유된 계면활성제 성분은 거품을 만들어 산소 침투를 막아 물을 오염시킵니다. 대안으로 친환경 세제로 알려진 유용 미생물(EM)을 많이 활용하길 바랍니다. EM은 하수구 악취를 방지하고 세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화초에 뿌려주면 굉장히 잘 자랍니다. 생활 속에서 EM을 많이 써야 하천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Q. 고양 생태하천 사랑을 해주신다면?

고양시 생태하천과의 노력 덕에 하천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민물 가마우지, 중대백로, 새백로, 왜가리, 제비,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등 새들이 많아서 깜짝 놀라고 감동받았죠. 지금 공공근로자 중 한 분은 예전 도촌천에서 악취가 많이 났는데 물이 맑아져서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생태하천과의 목표는 아이들이 발을 담고고 놀 수 있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있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Q. 앞으로도 자연과 함께하실 예정이신가요?

환경문제는 당장 마주한 현실입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자연을 가꿔야 내 자식들과 미래세대들이 맑은 공기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저는 제 자리에서 자연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고요!



도촌천에서 유해식물 제거 작업 중인 공공근로자들